

---

## 청소년들의 연행 등에 대한 몇몇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

---

2008년 5월 30일 오후 5:57

보낸 곳 :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

받는 곳 : 몇몇 언론사들

담당 연락처 : 02-335-0148

제목 : 청소년들의 연행 등에 대한 몇몇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대한 항의 의견

1. 안녕하세요. 저희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은 5월 17일 청소년들의 등교거부를 비롯한 여러 자발적인 행동들을 지원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던 단위입니다. 현재 서울쪽의 행동을 준비했던 단위들이 이후의 활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저희는 몇몇 언론들이 5월 27일 밤에 청소년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연행되는 청소년들에게 "집에 보내주세요"라는 해설을 붙이는 등, 청소년들을 약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 불쌍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집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언론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이후에는 이런 보도 태도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저희 공동준비모임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분이 이와 관련하여 쓴 글을 보내드립니다.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으나, 실어주시지 못하더라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글

#### : "미성년자 석방하라"의 함정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의 사람들은 거리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것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면서 행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해가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연행된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가 뜨면서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

기사의 내용은 주로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학생들', "'집에 가고 싶어요' 여중생의 눈물', "'미성년자는 석방하라!'"... 끝내 모두 연행' 등의 내용이다.

나는 최근 촛불집회와 가두시위에 몇 차례 참가했던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자라는 아니지만 시위 때 경찰에 연행도 한 번 당했던 청소년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미성년자 연행'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무고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해가는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연약하고 어린 여중생', '눈물 짓는 어린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여중생'으로 보이는 10대가 연행버스 창문을 통해 "집에 가고 싶다"라고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

해갔다, 는 내용인데 현장에 있던 당사자로서 말하자면 사실 그 때 그 청소년은 "집에 가고 싶다"가 아닌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 촛불집회의 정당함을 알리는 얘기를 외쳤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여중생, 중학생'이라는 이미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못미"라는 목소리를 담고서 '중학생', 어린 학생' 등 '약한 자의 이미지'로 비치게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그저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청소년을 청소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에서 나는 문제를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하고 직접 자기 요구를 말하는 것에 "미성숙하니까", "위험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한계를 두고 비청소년들이 그걸 대신 해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청소년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부당한 연행 자체보다는 '저 어린 애들'까지 연행해가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저 어린 애들'까지도 거리로 나오게 내모는 정부를 욕하며,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지으려 한다.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차별이 부당한 것처럼, 청소년과 비청소년도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집회에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전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그만 집에 가지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 '보호주의'의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자주 눈에 띄는 문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내 친구는 "어른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위험한 건 다 같이 위험하지 않은가? "미성년자는 석방하라!"는 얘기도, 결국 '미성년자'에 대한 평소의 좀 차별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일 뿐, '미성년자'만이 특별히 석방되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

우리 이제 "왜 우리만 풀어주냐. 모두 다 석방하라."라고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하거나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자", "서로를 지켜주자"는 구호를 함께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난다

(성남 청소년인권모임 인지인,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